

# 진도군, 감성조명 설치로 야간 볼거리 명소 '우뚛'

### 진도읍 시가지 화려한 조명으로 관광객 유혹



진도군이 진도읍 시가지 일대에 감성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 명소로 우뚛 섰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예산 1억여 원을 투입, 진도읍 시가지를 화려한 조명으로 새롭게 연출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볼거리와 야간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진도읍 주요 도로 조명을 LED로 설치했다.

이번 설치된 감성조명은 우리나라 근대 6대 화가인 의제 허백련 선생의

생가 주변에 의제 허백련 선생의 산수화와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가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광섬유 열주 등 7개소, 스트링 라이트(감성조명) 3개소를 설치했다.

수도권에서 휴가를 온 관광객들은 "진도읍 골목에 밝은 야간 경관조명이 고즈넉하고 은은한 밤 분위기를 내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며 즐거워했다.

진도군은 쇠퇴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경쟁력 있는 골목으로 개선하기 위

해 지난 1월부터 진도읍 남문로 상가 일대에 ▲조형물·안내판 설치 ▲청년 챌린지 숲 운영 ▲낭만의 밤 버스킹 공연 ▲음식 레시피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진도읍 중심상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분수 설치 등 진도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담당 관계자는 "이번 진도읍 시가지 조명 설치로 어두웠던 거리가 밝아져 야간 시야 확보는 물론 밤에 걷고 싶은 야간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리 곳곳에 진도개 아트벤치와 상가 디자인을 개선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폐거리를 활용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과 공실상대 상가를 청년점포 챌린지 숲 이색상가로 활용하는 등 주민과 상인, 관광객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산 구운 김, 폴란드 수출길 올라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벨기에 브뤼셀 수산물 박람회(2019년 5월 7~9일)에 참가하여 10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

한 ㈜바다명가는 최근 완도산 구운 김을 폴란드에 첫 수출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신직식은 ㈜바다명가 제2공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석호 완도부군수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임영태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1차분으로 완도산 구운 김 15,660속(220박스)을 선적했다.

(주)바다명가와 계약한 아시아마켓은 아시아 중 한국, 일본 식품을 폴

란드에 수입하는 회사로 주 고객은 대규모 도매회사와 중소 규모 자영업자 등 많은 층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유럽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조사와 연계 기업 발굴 및 판로 확보 등 여러 목적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이번 수출을 통해 센터가 노력한 결실이 보여 앞으로도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목포근대역사관, 관람객 증가

목포근대역사관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는 106,4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945명(13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람객 증가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람객 수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처음으로 10만 명(103,904명)을 넘으면서 2014년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목포 근대역사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는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람객 증가 원인으로 근대역사관이 위치한 목포 원도십일대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면단위문화재 등록(등록문화재 제718호)된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해 원도십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문화재 야행(夜行)' 및 '생생문화재(육단이)와 함께 하는 목포근대역사여행' 등 근대문화유산 활용 연계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많은 관람객을 유인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계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tvN의 '호텔 델루나' 드라마 촬영지 활용을 통한 미디어마케팅,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했던 테마여행 10선 대국민 이벤트 등을 통해 목포근대역사관이 더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앞으로 근대역사관 경관 조명 정비, 전시물 확충 등으로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성을 높여 목포를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근대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무안군, 고령농 대상 농작업 대행서비스 현장점검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민선7기 공약사업인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사업' 추진 현장점검차 일로농협 영농지원단 병 병해충 항공방제 농작업 대행 현장을 방문하였다.

무안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사업'은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하여 관내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부녀농), 경작면

적이 10,000㎡ 미만인 농업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체 고령농 경작농지 6천ha의 50%인 3천ha 농작업 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무안군은 사업비 17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 5개소에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고령농 중심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농작물 수확, 동계작물 파종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일로농협은 올해 전문 방제 인력 9명을 조직하여 무인헬기 1대를 추가 지원받아 무인헬기 총 3대, 드론 1대를 이용하여 연 3회 공동방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해남군,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해남군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전라남도도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기업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이 군 및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결정후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기한연장·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에서 가장 1년으로 9월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부과장 또는 전라남도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자매결연도시 초청 농촌문화 체험 행사 진행

경기 시흥시 정왕4동 주민 등 초청

영암군 미암면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자매결연 도시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주민과 학생 64명을 초청해 농촌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무화과 따기, 고구마 캐기 농촌체험과 한옥에서 하루 자보기, 전통한복 입어 보기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영암군의 귀농·귀

촌 지원정책 설명과 함께 귀농·귀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왕4동 방문단은 "불볕 더위 속에서 무화과·고구마 수확을 체험 하면서 농민들의 정성과 고충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보니 철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진군, 주요 물놀이장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강진군이 휴가철을 맞아 지난 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여명과 함께 관내 물놀이장 3개소(보은산V랜드, 석문공원, 초당림)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식중독과 수인성전염병 예방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진군은 캠페인을 통해 강진이 식중독 청정지역임을 홍보하고 식중독의 증상, 치료방법, 올바른 손씻기 순서 등에 대한 전단지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영랑생가, 청자박물관, 다산초당 등 아이들과 함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관광지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음식물 보관과 조리 시 주의가 기울이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식중독 없는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민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